발간일 | 2024년 12월 19일

작성자 | 김현욱 경제동향분석위원
hwkim@bdi.re.kr

제44호

BDI
경제동향브리프

2025년 부산경제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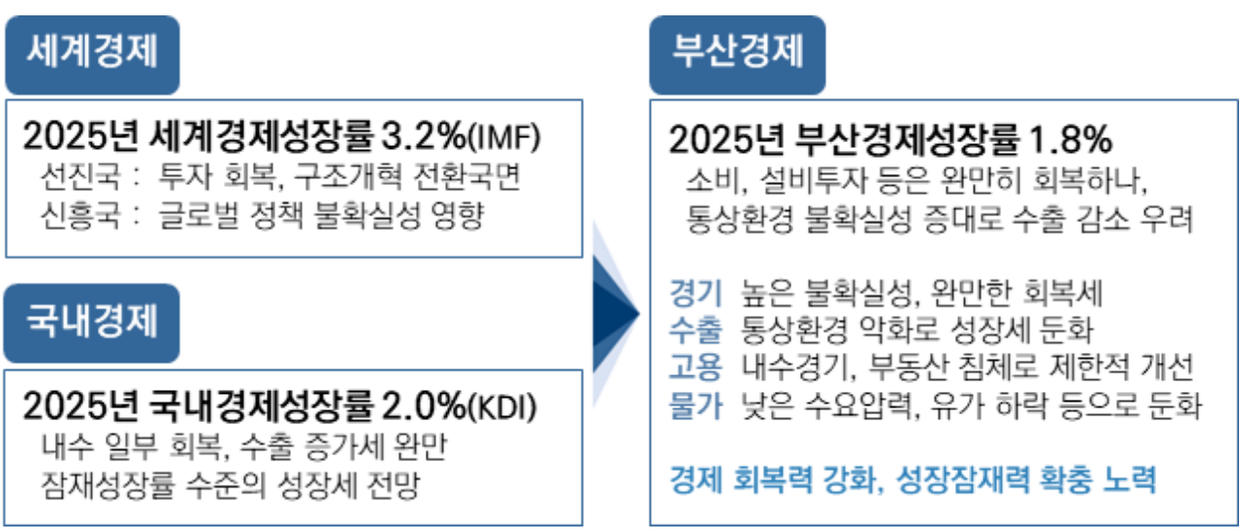
Ⅰ. 대내외 경제여건
Ⅱ. 부산경제 부문별 전망
Ⅲ. 부산경제 산업별 전망
Ⅳ. 시사점

부산연구원
홈페이지

※ 이 보고서는 BDI 연구책임자의 견해로 부산광역시의 정책 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요 약

- ☑ 2025년 부산 경제성장률은 1.8% 전망
- ☑ (경기) 주요 불확실성 요인들이 경기 하방 압력으로 작용, 상저하고형 완만한 회복세 예상
- ☑ (수출) 중국의 공급 확대, 미국 보호주의 강화 등으로 성장세 둔화 전망
- ☑ (고용) 내수경기, 부동산시장 침체 등으로 제한적 개선세 전망
- ☑ (물가) 낮은 수요 압력, 국제 유가 하락 등으로 둔화 예상
- ☑ 세계경제 불확실성이 확대될 전망으로 경기 흐름 모니터링 및 정책대응을 통한 회복력 강화, 성장잠재력 확충 노력 필요
- ☑ 지역 산업 지속성, 확장성 확보를 위한 시장환경 변화 대응 강화



Ⅰ 대내외 경제여건

1 세계경제

▶ 2025년 세계경제 성장률은 3.2%(IMF) 전망

- 세계경제 하방조정 위험요인 확대
- (상방요인) 주요 선진국 투자 회복, 구조개혁 모멘텀 확산에 의한 잠재성장률 제고
- (하방요인) 통화정책 시차 효과, 중국 부동산 위축 지속, 보호무역주의 강화 및 지정학적 위기 심화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

(단위: 전년대비, %)

	IMF(2024.10.)		OECD(2024.12.)	
	2024	2025	2024	2025
세계	3.2	3.2	3.2	3.3
선진국	1.8	1.8		
신흥국	4.2	4.2		

자료 : IMF World Economic Outlook, OECD Economic Outlook

2 국내경제

▶ 2025년 국내경제 성장률은 2.0%(KDI) 수준 전망

- 내수 부진이 점차 완화되겠으나 수출 증가세가 둔화
- (민간소비) 고물가·고금리 영향 감소로 소비여력 개선
- (설비투자) 글로벌 통화긴축 완화, 반도체경기 호조세로 회복
- (건설투자) 누적된 건설수주 감소 영향으로 부진
- (상품수출) 중국발 공급 확대, 미국 보호무역 강화 등 통상 여건 관련 불확실성 확대

〈국내경제 성장률 전망〉

(단위: 전년대비, %)

기관	2024	2025
한국은행 (2024.11.)	2.2	1.9
KDI (2024.11.)	2.2	2.0
OECD (2024.12.)	2.3	2.1
IMF (2024.11.)	2.2	2.0

자료 : 한국은행 경제전망보고서, KDI 경제전망, IMF World Economic Outlook, OECD Economic Outlook

Ⅱ 부산경제 부문별 전망

1 부산 경제성장률

▶ 2025년 부산 경제성장률은 1.8% 수준 전망

- 소비, 설비투자 등은 완만히 회복하겠으나, 지정학적 위기 및 공급망 분절화 등으로 수출 감소 우려
- (민간소비) 금리 인하, 실질소득 증대 등 소비여건 개선으로 완만한 회복세
- (설비투자) 긴축 통화정책 기조 완화, 투자활성화 대책 등으로 증가
- (건설투자) 누적된 위축 영향으로 부진 지속
- (상품수출) 주요국 자국우선주의·보호무역주의 심화, 중국 공급과잉 등으로 성장세 둔화
- (불확실성) 지정학 및 통상환경 관련 불확실성, 중국경기 부진, 건설업 재무건전성 악화 실물경제 파급 우려

〈부산경제 성장률 전망〉

(단위: 전년대비, %)

		2024	2025
부산 GRDP	(KDI 전망 활용)	2.0	1.8
	(한국은행 전망 활용)	2.0	1.8

주 : KDI, 한국은행 전망과 지역 성장률 격차 추이 및 대내외 불확실성 반영
자료 : 부산연구원 미래혁신경제센터

〈전망 방법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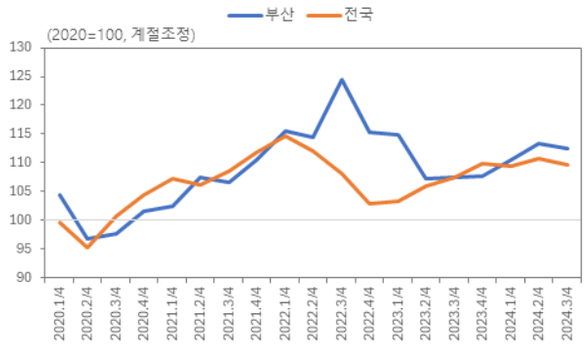
- 전국, 부산의 경기종합지수 순환변동치를 기준추세로 시계열 미래값 예측
- 순환변동치와 실제 경제성장률 추이 비교
- KDI, 한국은행 2025년 경제성장률 전망치 활용, 전국 부산 성장률 격차 감안 전망치 추정
- 대내외 불확실성 요인을 반영하여 조정

2 경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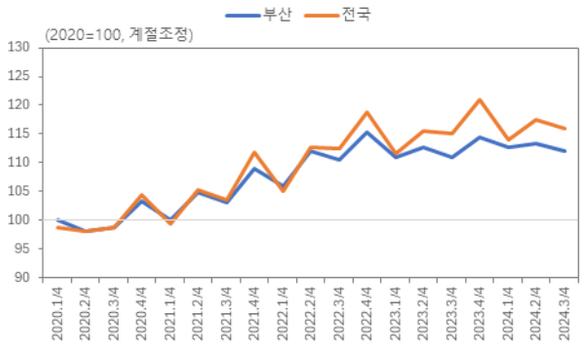
▶ 주요 불확실성 요인들이 경기 하방 압력으로 작용, 완만한 회복세 예상

- 2024년 부산 경기는 조선, 기계장비 등 제조업 생산이 증가했으나, 고물가·고금리 등이 회복의 제약 요인으로 작용
- 2025년은 지정학적 불확실성, 금융시장 변동성 등이 회복을 제약하여 완만한 회복세 예상
- (불확실성) 글로벌 경쟁 심화, 무역장벽 강화, 탈중국 경향 등이 변수로 작용

〈광공업 생산지수〉



〈서비스업 생산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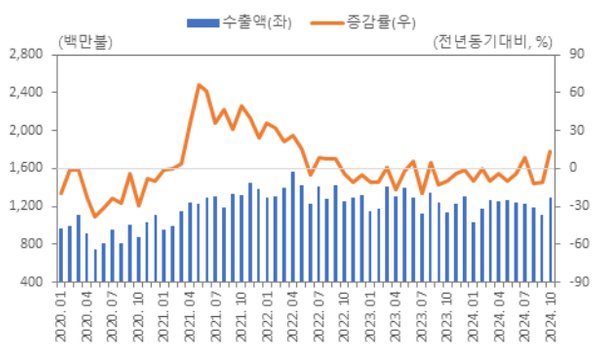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3 수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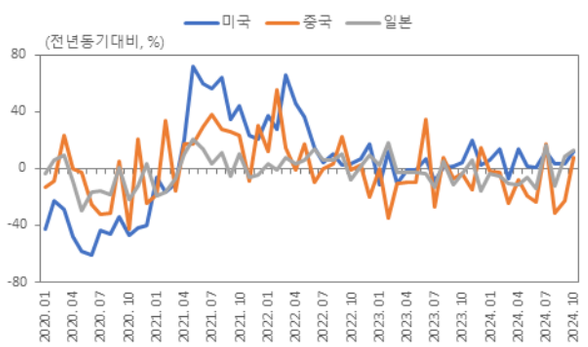
▶ 중국의 공급 확대, 미국 보호주의 강화 등으로 성장세 둔화 전망

- 2024년 부산 수출은 지역 완성차 업체 신차 부재에 따른 자동차 수출 감소, 중국산 저가 밀어내기로 인한 철강 수출 침체 등으로 부진
- 2025년은 중국의 저가 수출 지속, 美 트럼프 행정부의 보편적 기본 관세 부과 등으로 성장세 둔화 전망
- (불확실성) 美 트럼프 행정부 관세 정책, 중국 경기 침체, 지정학적 갈등 지속 등

〈부산 수출〉



〈부산 주요국가 수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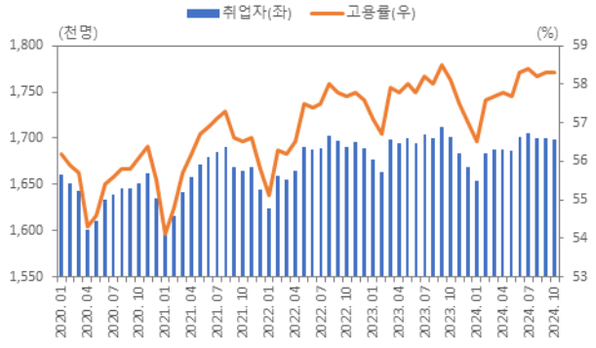
자료 : 한국무역협회

4 고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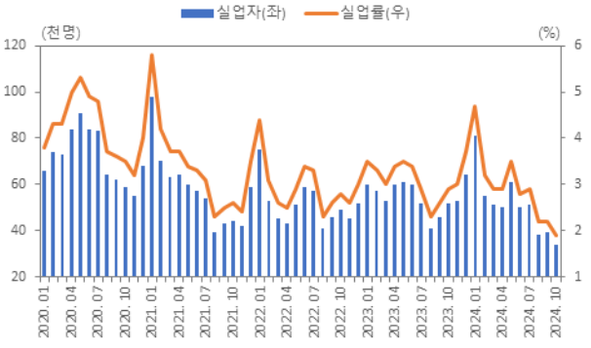
▶ 주요 지표 개선에도 불구 내수경기와 부동산시장 침체로 도소매·숙박음식점업과 건설업 고용 악화 예상

- 2024년 도소매·숙박음식점업과 건설업 등의 취업자는 크게 감소하였으나, 제조업은 하반기 이후 증가 전환, 생산가능인구 감소 영향으로 고용률 개선
- 2025년은 서비스업 노동 수요 감소와 건설 경기 부진 등으로 고용 개선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
- (불확실성) 내수경기 침체 지속, 통상 마찰에 따른 제조업 수출·생산 감소, 부동산시장 개선 시기 등

〈부산 취업자·고용률〉



〈부산 실업자·실업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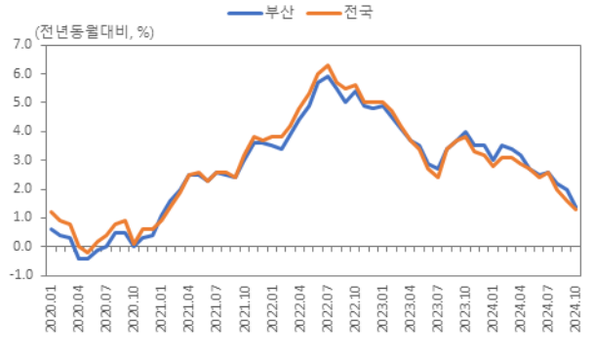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5 물가

▶ 낮은 수요 압력, 국제 유가 하락 등으로 상승률 둔화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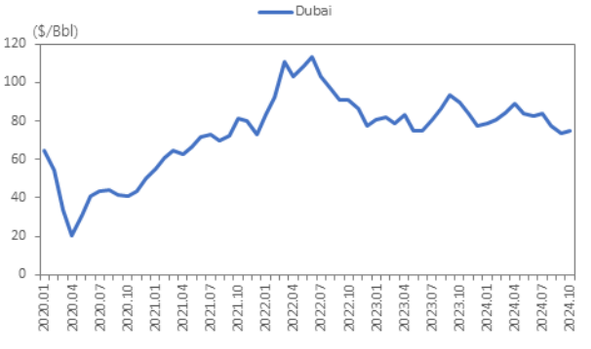
- 2024년 상반기 농산물, 서비스 가격 상승 등으로 상승세를 보였으나 하반기 유가하락과 공공서비스요금 기저효과 등으로 상승폭 크게 축소
- 2025년은 농산물 수급여건 개선, 유가 하락 등으로 물가상승률이 둔화될 것으로 예상, 단 지정학적 갈등 전개 양상에 따라 물가 상승 가능성도 존재
- (불확실성) 국제 유가 추이, 러시아-우크라이나 및 중동 사태 장기화, 공공요금 조정 가능성 등

〈부산 소비자물가〉



자료 : 통계청

〈국제 원유 가격〉



자료 : 한국석유공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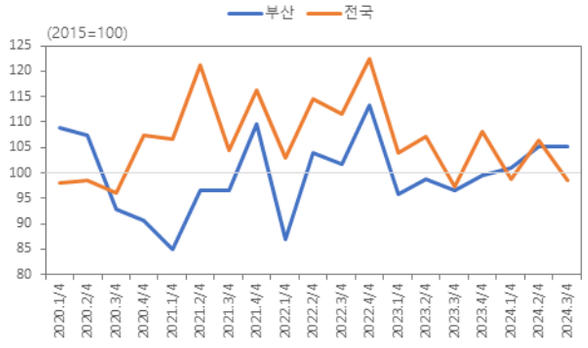
Ⅲ 부산경제 산업별 전망

1 제조업

▶ (기계장비) 대외여건 악화로 수출 정체가 예상되나 내수 회복 기대로 소폭 개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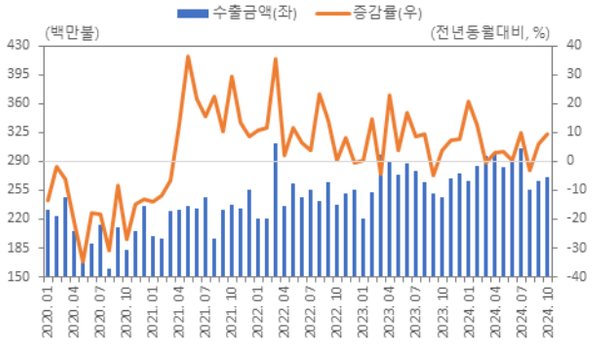
- 2024년 부산 기계장비는 조선 등 전방산업 수요 증가와 글로벌 수요 호조로 생산 및 수출이 증가
- 2025년은 대외여건 악화로 수출 성장세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되나 수요산업 점진적 회복과 트럼프 행정부의 설비투자 증가 등으로 소폭 개선 예상
- (불확실성) 중국경제 불안 지속, 美 트럼프 2.0 출범,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기계장비 생산지수〉



자료 : 통계청

〈부산 기계장비 수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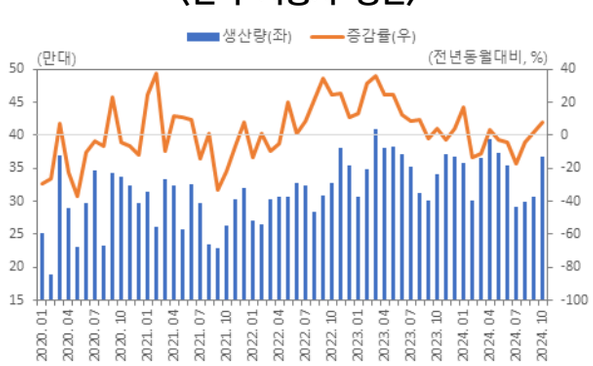


자료 : 한국무역협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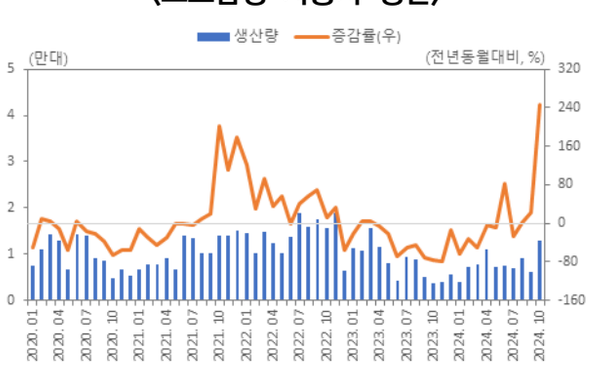
▶ (자동차) 2025년 대규모 투자 및 전기차 생산 본격화로 업황 개선 전망

- 2024년 부산 자동차 산업은 8월 출시된 르노코리아의 신차 효과 등으로 내수 판매 일부 회복
- 2025년 르노코리아의 대규모 투자(오로라 프로젝트)와 전기차 '폴스타4' 생산 등의 영향으로 자동차 산업 및 관련 서비스 업황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
- (불확실성) 미국의 보편적 관세 인상, 인플레이션감축법(IRA) 폐지에 따른 전기차 산업 영향

〈한국 자동차 생산〉



〈르노삼성 자동차 생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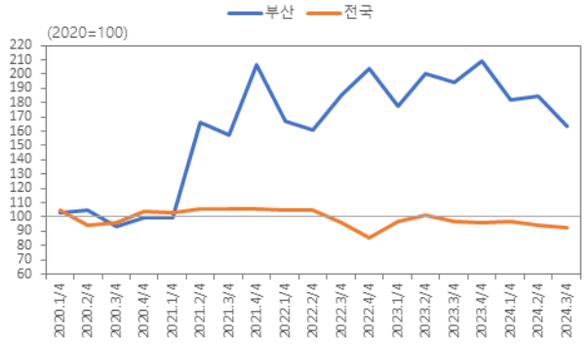


자료 : 한국자동차산업협회

▶ (철강) 수요산업 회복 지연과 교역조건 악화로 수출과 생산 부진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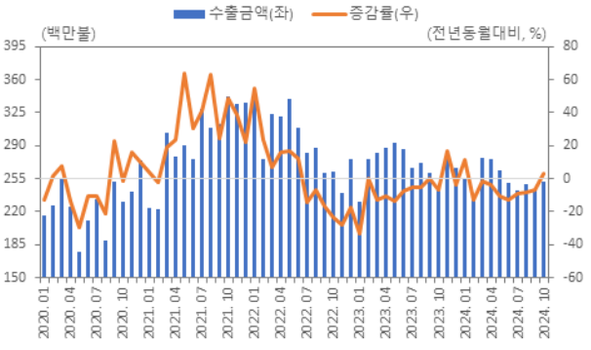
- 2024년 중국의 저가 수출 증가와 건설경기 침체 등으로 전년대비 생산과 수출 감소
- 2025년은 건설, 자동차 등 수요산업 부진과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부과 등의 영향으로 개선세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
- (불확실성) 관세 부과로 인한 대미 수출 감소, 미국의 대중국 견제 강화에 따른 반사 이익, 건설경기 회복 시점 등이 변수

〈철강 생산지수〉



자료 : 통계청

〈부산 철강 수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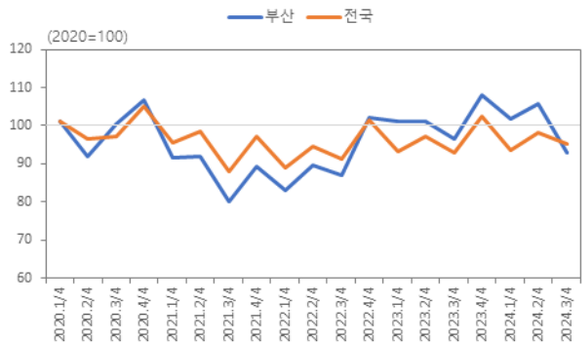


자료 : 한국무역협회

▶ (금속가공) 전방산업 경기 둔화로 회복세 지연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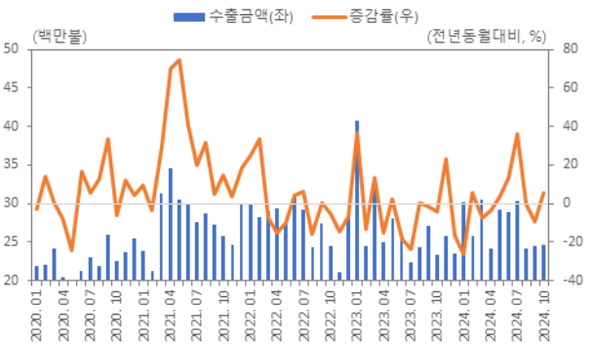
- 2024년 부산 금속가공은 국내 건설경기 위축, 중국산 저가제품 유입 확대, 대중 중간재 수출 감소 등으로 회복세 지연
- 2025년은 건설업의 제한적 성장, 중국 및 아세안 지역 공급 과잉 등으로 성장세 둔화 예상
- (불확실성) 친환경 규제, 중국의 과잉공급·경쟁력 상승

〈금속가공 생산지수〉



자료 : 통계청

〈부산 금속가공 수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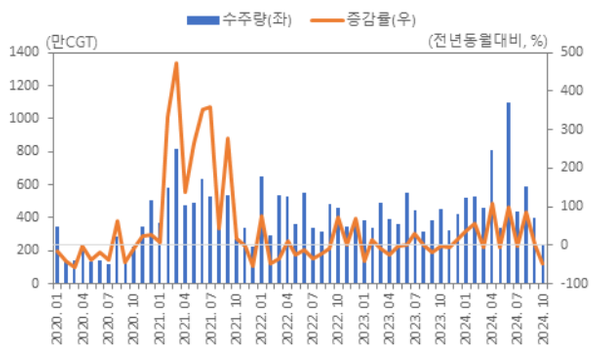


자료 : 한국무역협회

▶ (조선) 충분한 수주잔량 확보, 생산 현장 안정화 등으로 개선세 유지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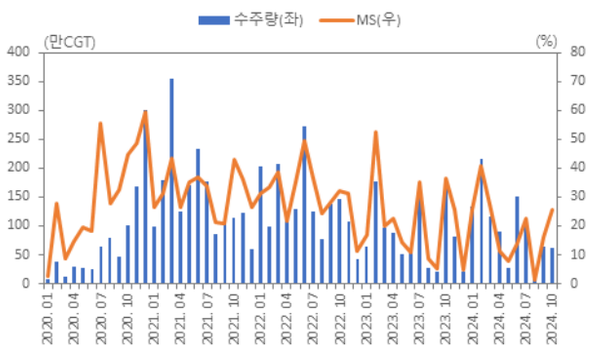
- 2024년 부산 조선은 고부가·친환경 선박 중심 기수주 물량 건조 등으로 증가
- 2025년은 해외선사 수출선 물량 증가, 인력 확보 및 숙련도 향상 등으로 생산 현장 안정화 등으로 수출 증가 기대
- (불확실성) 중대재해 발생으로 인한 생산 차질, 중소형 조선사 중심 선수금환급보증 한도 부족

〈세계 신규 수주〉



자료 : CLARKSONS

〈한국 신규 수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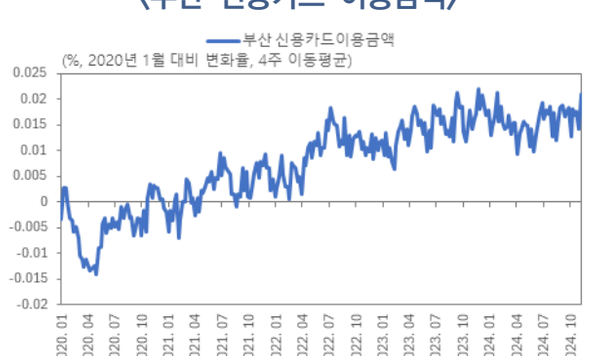
자료 : CLARKSONS

2 서비스업

▶ (도소매)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에도 금리 하락, 가처분소득 증가 등에 따라 소폭 회복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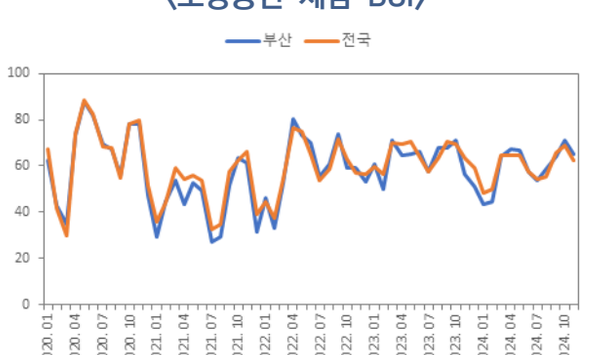
- 2024년 부산 도소매는 고금리, 고물가, 소득 정체 등 소비 구매력 제약으로 침체
- 2025년은 대내외 불확실성이 확대되겠으나, 금리 인하, 실질소득 증대 등 소비 여건 개선으로 완만한 회복세 전망
- (불확실성) 주력 소비계층 일자리 불안, 온라인 쇼핑 확대, 생활 필수품 취급 업태 간 경쟁 점증

〈부산 신용카드 이용금액〉



자료 : 통계청 나우캐스트

〈소상공인 체감 BS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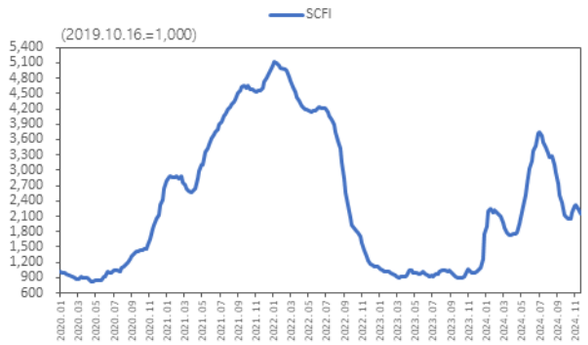


자료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운수·창고) 글로벌 수요 회복이 기대되나, 공급망 분절화, 지정학적 위기 등으로 성장세 제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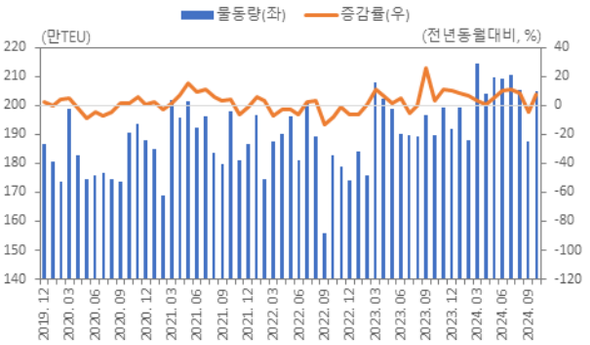
- 2024년 부산 운수창고는 글로벌 수요 회복 등으로 상품 무역에서 비교적 강한 회복
- 2025년은 선진국 중심 투자 확대 등으로 세계 수요 회복이 기대되는 반면, 지정학적 갈등 고조, 공급망 교란, 주요국 보호무역 기조 지속 등이 성장을 제약
- (불확실성) 글로벌 친환경 규제 강화,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한 공급망 불확실성, 얼라이언스 재편

〈컨테이너 운임지수〉



자료 : Shanghai Shipping Exchange

〈부산항 컨테이너 물동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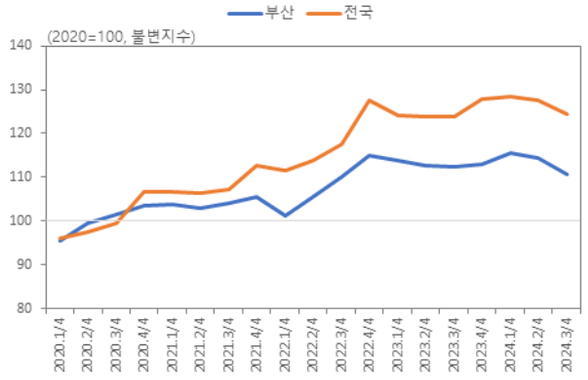


자료 : 해양수산부

▶ (금융·보험) 금리 인하, 대출 규제 등의 영향으로 성장세 둔화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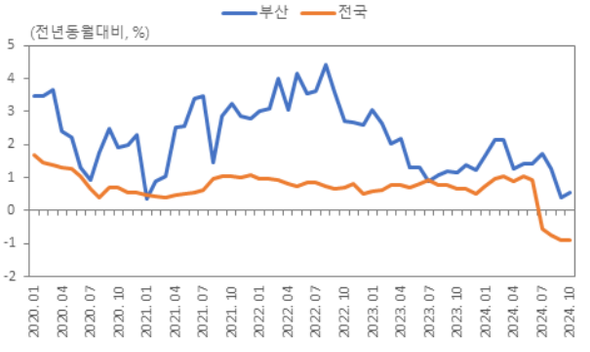
- 2024년 부산 금융·보험은 고금리, 대출 증가, 예대금리차 확대 등에 따른 이자수익 증가로 성장세
- 2025년은 금리 인하, 대출 규제 등으로 수익성은 올해와 비슷하거나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부동산PF 부진 등으로 일부 업종의 성장성은 제약될 전망
- (불확실성) 부동산PF 리스크, 정부 대출 규제 변화, 금리 인하 속도

〈금융·보험업 생산지수〉



자료 : 통계청

〈금융·보험업 고용보험 가입자 증감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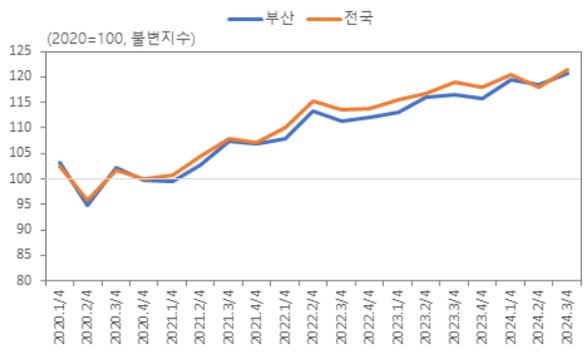


자료 : 한국고용정보원

(보건·사회복지) 지역의료 강화, 약자복지 2.0 추진 등으로 지속 성장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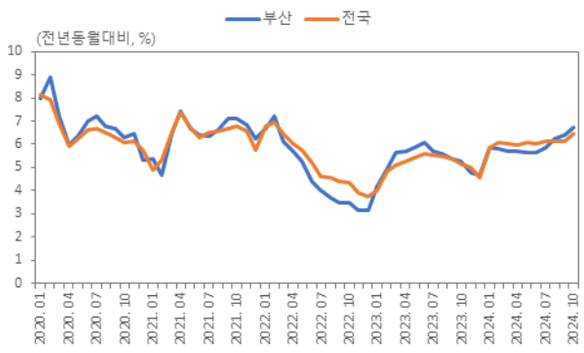
- 2024년 부산 보건·사회복지는 인구 고령화, 복지안전망 고도화 노력 등으로 증가
- 2025년은 지역·필수의료 보장 투자 확대, 약자복지 강화 등으로 지속 성장 예상
- (불확실성) 인구 고령화, 생산연령인구 감소, 복지지출 증가세 둔화

〈보건·사회복지 생산지수〉



자료 : 통계청

〈보건·사회복지 고용보험 가입자 증감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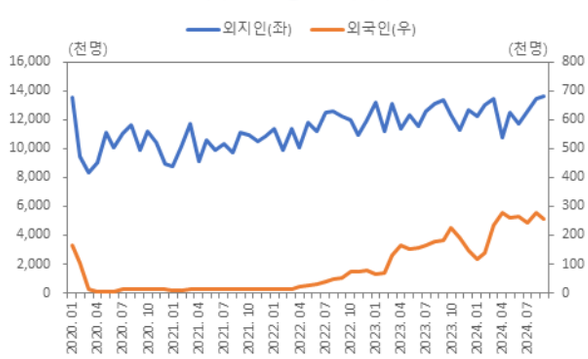


자료 : 한국고용정보원

(관광) 외국인 관광객 및 관광지출액 점진적 증가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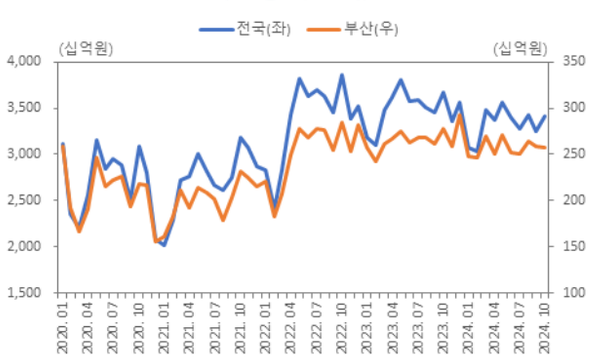
- 2024년 내·외국인 관광객은 증가하였으나 소비심리 위축으로 내국인 관광객 지역 내 소비지출은 감소
- 2025년은 외국인 관광객과 소비지출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해외여행 증가 등으로 내국인 관광객 증가는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
- (불확실성) 직항로 개설에 따른 인바운드 관광 유입 정도, 내수경기 회복 시기, 내·외국인 관광소비패턴 변화 등

〈부산 방문자수〉



자료 : 외지인-한국관광 데이터랩(KT 기준)
외국인-부산관광공사

〈관광지출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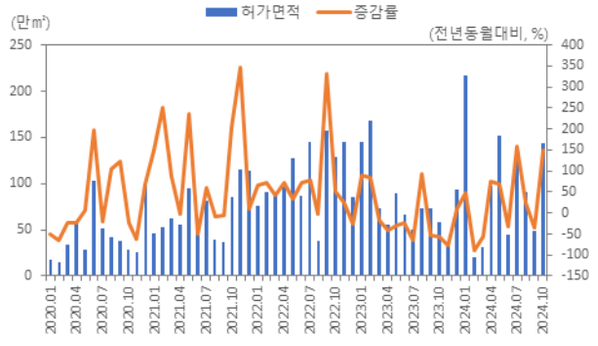
자료 : 한국관광 데이터랩

3 건설업

▶ (건설) 미분양 증가, 공사비 상승, 주택 수요 침체로 수익성 악화 및 제한적 성장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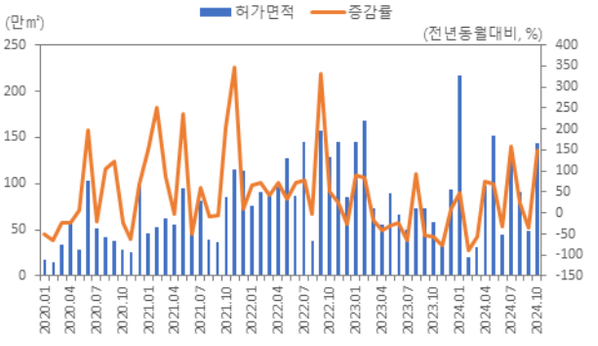
- 2024년 부산 건설은 고금리, 공사비 상승, 미분양 증가, 주택시장 침체 등으로 경영 위험 증가
- 2025년은 금리 인하, 지방 가계 대출 규제 완화로 일부 회복이 기대되지만, 경기침체에 따른 주택 수요 감소, 부동산 PF 위험과 공사비 상승 등으로 제한적 성장 전망
- (불확실성) 부동산 PF 위험, 대출 규제 완화 및 금리 인하 속도, 공사비 변동성

〈부산 건축 허가〉



자료 : 국토교통부

〈부산 건축 착공〉



자료 : 국토교통부

Ⅳ 시사점

1 부산 부문별 시사점

▶ 지역 성장잠재력 확충 노력 필요

- 기술-서비스 융복합을 통한 서비스 신산업 육성 지원, 실증 테스트베드 구축 및 현장 지원
- 장기 생산성 향상을 위한 인프라 확충, 투자·정주여건 개선, 지식서비스산업 집적 노력
- 생산과정 혁신을 위한 디지털 전환 역량 강화 필요. 투자자금 확보 지원, 지식·정보 공유, 전문인력 확충, 수요 맞춤형 솔루션 지원 등 중앙정부 정책과 연계한 정책 추진 지속
- 제조업 서비스화 확산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 생산효율성 강화, 오픈 이노베이션(Open Innovation) 플랫폼 활성화를 통한 효율성 및 부가가치 창출 극대화

▶ (경기) 지역 경기 흐름 모니터링 및 정책 대응을 통한 지역경제 회복력 강화

- 경제위기 발생 시, 신속한 회복방안 모색을 위한 위기대응 체계 유지(비상경제대책회의 등)
- 가계 및 기업 재무건전성 지표 악화 가능성 모니터링, 질적 건전성 제고 노력
- 네트워크 기반 산업생태계 및 혁신플랫폼 구축 강화 등을 통한 중장기 산업 구조 다각화, 고도화, 구조전환 전략 강화

▶ (수출) 교역 및 정책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수출경쟁력 강화, 글로벌화 지원 강화

- 보호무역주의 확산, 수출규제 대응을 위한 수출단계별 지역기업 육성 체계 고도화
- 해외시장 진출 중소기업 글로벌화 지원사업 확대

▶ (고용) 산업구조 및 노동환경 변화 대응 정책적 노력 지속, 업종·계층별 선제적 대응방안 강구

-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연계 인재 양성, 직업 훈련, 취업 지원 강화를 통한 지역 일자리 생태계 구축
- 신산업 분야 경쟁력 향상, 노동자 고용안정성 강화를 위한 지역산업 맞춤형 직업훈련 강화 노력
- 급격한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하여 고용부진 예상 업종 전직지원 및 생계안정 등 일자리 대책 마련

▶ (물가) 기후변화, 환율 및 국제유가 움직임, 공공요금 조정 등 불확실성 모니터링 지속

- 기후변화로 인한 작황차질, 트럼프 정부 무역정책, 달러화 강세 가능성 등 불확실성 모니터링 지속
- 공공서비스요금 조정시 취약계층에 대한 선별 지원 노력

2 부산 산업별 시사점

▶ 지역 산업 지속성, 확장성 확보를 위한 시장환경 변화 대응 강화

- (기계장비) 수출경쟁력 강화, 내수 활성화 지원
  - * 주요 환경규제 정책 변화 대비 지원체계 구축
  - * 국내 중소기업 노후 장비투자 관련 세제 지원 확대
- (자동차) 전기차 및 미래차 관련 투자 활성화 지원
  - * 미래차 중심 산업생태계 전환을 위한 자금, 기술, 인력 지원체계 정비
  - * 모빌리티 플랫폼 분야 생태계 조성을 위해 경쟁력 있는 스타트업, 중소기업 발굴 지원
- (철강) 제품경쟁력 강화 전략 및 통상환경 변화 대응체계 구축
  - * 탄소중립 체제 전환, 고부가가치 제품 개발 등 연구개발투자 확대 지원
  - * 민관 협의체 지속 운영을 통한 통상현안 대응방안 모색
- (금속가공) 맞춤형 정책과제 발굴, 수행
  - * 생산성 강화를 위한 디지털 전환, 공정개선 투자
  - * 맞춤형 인재양성을 위한 현장기술인력 대상 교육 지원 프로그램 확대
- (조선) 연관산업 협력 확대, 인력육성 체계화
  - * 지역 조선 관련 전후방 산업 상생협의체 운영, 협력강화
  - * 지역 조선기자재 산업 현장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 노력 지속
- (도소매) 경영안정 지원강화, 대형 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간 상생협력 확산 유도
  - * 컨설팅(멘토링), 브랜딩 지원 등을 통한 경영안정화
  - * 지역 대형 유통기업, 중소유통기업 간 판로·자금 등 상생 활동 지속 추진
- (운수창고) 물류효율화, ESG 추세 대응 인프라 확충 필요
  - * 선박, 항만, 배후단지 물류시설 스마트화, 전문인력 양성 지원
  - * 글로벌 환경규제 강화에 대응, 친환경 기술 투자 지원
- (금융보험) 금융기회발전특구 활용, 미래성장동력 발굴을 통한 혁신 지원
  - * 자영업자 대출 부실위험, 주택담보대출 관리 등 지역 금융리스크 관리 지원
  - * 인구구조 변화, 기후 변화, 기술 혁신 등 지역 금융보험산업 미래 변화 요인 대응

- (보건사회복지) 보건사회복지 고도화를 위한 서비스 체계 개선, 인프라 확대 노력 필요
  * 인력 고도화, 전문화 지원을 통한 보건사회복지 분야 질적 향상 도모
  * 인력 분업·전문화를 통한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내실화, 취약계층 사회안전망 강화 노력 지속
- (관광) 지역 관광상품 활성화, 지역관광사업 민간투자 활성화 추진
  * 체험형 관광 콘텐츠, 관광취약계층 맞춤형 관광콘텐츠(무장애 관광) 확충
  * 지역관광사업 민간 투자 지원체계 강화 노력
- (건설) 우수 지역 건설사 육성, 디지털 혁신 및 스마트건설 도입 지원
  * 우수 지역건설사 대상 기술개발, 컨설팅, 시장 확대를 위한 금융 지원 확대
  * 비용 절감, 생산성 증대 등을 위한 기술투자 및 스마트 건설 활성화 지원

부록 부산경제 전망 설문조사

1 조사 목적

▶ 부산지역 경제 주체들의 전망과 주요 이슈를 파악하여 정책적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부산경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실질적 기초 자료를 제공

2 조사 개요

▶ 조사대상 : 부산광역시 기관 및 학계 전문가, 소재 기업체(외감법인)

▶ 조사내용 : 204년 대비 2025년 부산지역 경제전망

- 전문가 전망 : 부산지역 경제상황, 생산, 소비, 수출, 고용, 물가, 전망 관련 지자체 차원 정책과제
- 기업체 전망 : 부산지역 경제상황, 업황, 매출, 인력사정, 자금사정, 채산성

〈조사 개요〉

구분	내용
조사 대상	부산광역시 기관 및 학계 전문가 부산광역시 소재 기업체(외감법인)
조사 표본	기관 및 학계 전문가 42명 기업체 300개사
조사 기간	2024년 11월 13일 ~ 2024년 12월 5일
조사 방식	온라인 및 면접조사
표본추출방법	할당표집
조사 내용	(전문가) 2024년 대비 2025년 부산지역 경제상황, 생산, 소비, 수출, 고용, 물가, 정책과제 (기업체) 2024년 대비 2025년 부산지역 경제상황, 업황, 매출, 인력사정, 자금사정, 채산성

3 응답 특성

〈전문가 특성〉

구분		빈도	비율(%)
전체		42	100.0
연령	30대	3	7.1
	40대	10	23.8
	50대	23	54.8
	60대 이상	6	14.3
경력	10년 미만	4	9.5
	10년 이상 20년 미만	8	19.0
	20년 이상 30년 미만	20	47.6
	30년 이상	10	23.8
소속기관	공공기관	7	16.7
	대학(학계)	28	66.7
	산업계(민간)단체	4	9.5
	연구기관	2	4.8
	기타	1	2.4

〈기업체 특성〉

구분		빈도	비율(%)
전체		300	100.0
업종	제조업(10~34)	153	51.0
	도매 및 소매업(45~47)	57	19.0
	건설업(41~42)	41	13.7
	부동산업(68)	15	5.0
	운수 및 창고업(49~52)	10	3.3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74~76)	6	2.0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70~73)	5	1.7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36~39)	4	1.3
	금융 및 보험업(64~66)	3	1.0
	농업, 임업 및 어업(01~03)	2	0.7
	숙박 및 음식점업(55~56)	2	0.7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90~91)	2	0.7
업력	10년 미만	37	12.3
	10년 이상 20년 미만	86	28.7
	20년 이상 30년 미만	75	25.0
	30년 이상	102	34.0
상시 근로자 수	20명 미만	87	29.0
	20명 이상 50명 미만	89	29.7
	50명 이상 100명 미만	69	23.0
	100명 이상	55	18.3

4 조사 결과

▶ 5점 척도로 조사하여 가중치를 적용해 전망지수(SI : Survey Index) 산출

※ 향후 매년 조사를 통해 변화 추이 분석 예정

- 응답 값을 5점 척도로 파악하여, 응답별로 0~200의 점수 부여
- (경기 순계열) 항목별 응답 결과는 0 ~ 200의 범위에서 기준치 100(전년 대비 변화 없음)이고, 200에 가까울수록 전년 대비 증가(개선) 의견이, 반대로 0에 근접할수록 감소(악화) 의견이 각각 많음을 의미
- (경기 역계열) 100이면 전년대비 보합, 100 이상이면 경기 부진, 100 미만이면 경기 호전으로 해석

〈전망지수(SI) 가중치〉

구분		가중치	항목
경기 순계열	1. 매우 개선	200	경제상황, 생산, 소비, 수출, 고용, 물가, 업황, 매출, 자금사정, 채산성
	2. 개선	150	
	3. 보합	100	
	4. 악화	50	
	5. 매우 악화	0	
경기 역계열	1. 매우 과잉	200	인력사정
	2. 과잉	150	
	3. 적정	100	
	4. 부족	50	
	5. 매우 부족	0	

〈전망지수(SI) 산출식〉

SI = [(1번 척도 응답빈도 × 200) + (2번 척도 응답빈도 × 150) + (3번 척도 응답빈도 × 100) + (4번 척도 응답빈도 × 50) + (5번 척도 응답빈도 × 0)] / (총 응답빈도수)

① 전문가

▶ (경기 개황) 2024년 대비 2025년 경기 개황 전망지수는 70.3

- 2024년 대비 2025년 부산지역 경제 상황에 대한 예상은 '개선(매우 개선+개선)' 9.5%(4명), '보합' 28.6%(12명), '악화(악화+매우 악화)' 61.9%(26명)

- 응답별로 살펴보면, 긍정 응답의 경우 '관광 업계 개선'이 5.2%(5명)로 가장 높고, 보합 응답의 경우 '호재 상황 없음', '성장요인 없음', '전통적인 제조업 견조' 각 1.0%(1명), 부정 응답의 경우 '산업 및 기업 부족(부진)'이 15.5%(15명)로 주요 응답

〈전문가 특성별 부산지역 경기 개황〉

(단위 : 명, %, p)

구분		N	매우 개선	개선	보합	악화	매우 악화	전망지수
전체		42	-	9.5	28.6	54.8	7.1	70.3
연령	30대	3	-	33.3	33.3	33.3	-	100.0
	40대	10	-	10.0	20.0	50.0	20.0	60.0
	50대	23	-	8.7	34.8	52.2	4.3	74.0
	60대 이상	6	-	-	16.7	83.3	-	58.4
소속 기관	공공기관	7	-	28.6	28.6	42.9	-	93.0
	대학(학계)	28	-	7.1	25.0	57.1	10.7	64.2
	산업계(민간)단체	4	-	-	25.0	75.0	-	62.5
	연구기관	2	-	-	100.0	-	-	100.0
	기타	1	-	-	-	100.0	-	50.0

▶ (생산) 2024년 대비 2025년 생산 전망지수는 69.1

- 2024년 대비 2025년 부산지역 생산에 대한 예상은 '개선(매우 개선+개선)' 4.8%(2명), '보합' 33.3%(14명), '악화(악화+매우 악화)' 61.9%(26명)

- 응답별로 살펴보면, 긍정 응답의 경우 '자동차/조선/기계 산업 개선'이 3.4%(3명)로 가장 높고, 보합 응답의 경우 '국내외 경제성장률 보합', '특별 발전 이슈 없음', '핵심 생산 부문 지속' 각 1.1%(1명), 부정 응답의 경우 '부산 산업 전반의 침체'가 16.1%(14명)로 높은 비중 차지

〈전문가 특성별 부산지역 생산〉

(단위 : 명, %, p)

구분		N	매우 개선	개선	보합	악화	매우 악화	전망지수
전체		42	-	4.8	33.3	57.1	4.8	69.1
연령	30대	3	-	-	66.7	33.3	-	83.4
	40대	10	-	10.0	20.0	50.0	20.0	60.0
	50대	23	-	4.3	39.1	56.5	-	73.8
	60대 이상	6	-	-	16.7	83.3	-	58.4
소속 기관	공공기관	7	-	-	42.9	57.1	-	71.5
	대학(학계)	28	-	7.1	32.1	53.6	7.1	69.6
	산업계(민간)단체	4	-	-	25.0	75.0	-	62.5
	연구기관	2	-	-	50.0	50.0	-	75.0
	기타	1	-	-	-	100.0	-	50.0

(소비) 2024년 대비 2025년 소비 전망지수는 76.3

- 2024년 대비 2025년 부산지역 소비에 대한 예상은 '개선(매우 개선+개선)' 16.7%(7명), '보합' 23.8%(10명), '악화(악화+매우 악화)' 59.5%(25명)
- 응답별로 살펴보면, 긍정 응답의 경우 '금리 인하'가 7.3%(6명)로 가장 높고, 보합 응답의 경우 '특별한 변화 없음' 2.4%(2명), 부정 응답의 경우 '지역 및 세계 경제 악화'가 12.2%(10명)로 가장 큰 비중

〈전문가 특성별 부산지역 소비〉

(단위 : 명, %, p)

구분		N	매우 개선	개선	보합	악화	매우 악화	전망지수
전체		42	-	16.7	23.8	54.8	4.8	76.3
연령	30대	3	-	33.3	33.3	33.3	-	100.0
	40대	10	-	20.0	-	70.0	10.0	65.0
	50대	23	-	13.0	39.1	43.5	4.3	80.4
	60대 이상	6	-	16.7	-	83.3	-	66.7
소속 기관	공공기관	7	-	14.3	14.3	71.4	-	71.5
	대학(학계)	28	-	10.7	28.6	53.6	7.1	71.5
	산업계(민간)단체	4	-	25.0	25.0	50.0	-	87.5
	연구기관	2	-	100.0	-	-	-	150.0
	기타	1	-	-	-	100.0	-	50.0

(수출) 2024년 대비 2025년 수출 전망지수는 75.0

- 2024년 대비 2025년 부산지역 수출에 대한 예상은 '개선(매우 개선+개선)' 14.3%(6명), '보합' 23.8%(10명), '악화(악화+매우 악화)' 61.9%(26명)
- 응답별로 살펴보면, 긍정 응답의 경우 '산업별 수출 회복'이 7.4%(6명)로 가장 높고, 보합 응답의 경우 '미국 관계 여부', '기본 수출 물량 확보', '세계 경제성장률 보합' 각 1.2%(3명), 부정 응답의 경우 '트럼프 당선'이 13.6%(11명)로 주요 응답

〈전문가 특성별 부산지역 수출〉

(단위 : 명, %, p)

구분		N	매우 개선	개선	보합	악화	매우 악화	전망지수
전체		42	-	14.3	23.8	59.5	2.4	75.0
연령	30대	3	-	-	33.3	66.7	-	66.7
	40대	10	-	20.0	40.0	40.0	-	90.0
	50대	23	-	17.4	17.4	65.2	-	76.1
	60대 이상	6	-	-	16.7	66.7	16.7	50.1
소속 기관	공공기관	7	-	-	57.1	42.9	-	78.6
	대학(학계)	28	-	17.9	14.3	64.3	3.6	73.3
	산업계(민간)단체	4	-	25.0	25.0	50.0	-	87.5
	연구기관	2	-	-	50.0	50.0	-	75.0
	기타	1	-	-	-	100.0	-	50.0

(고용) 2024년 대비 2025년 고용 전망지수는 77.3

- 2024년 대비 2025년 부산지역 고용에 대한 예상은 '개선(매우 개선+개선)' 7.1%(3명), '보합' 45.2%(19명), '악화(악화+매우 악화)' 47.6%(20명)
- 응답별로 살펴보면, 긍정 응답의 경우 '일자리 증가'가 2.6%(2명)로 가장 높고, 보합 응답의 경우 '경제 상황 보합' 2.6%(2명), 부정 응답의 경우 '국내외 경제 악화'가 11.7%(9명)로 높은 비중 차지

〈전문가 특성별 부산지역 고용〉

(단위 : 명, %, p)

구분		N	매우 개선	개선	보합	악화	매우 악화	전망지수
전체		42	-	7.1	45.2	42.9	4.8	77.3
연령	30대	3	-	33.3	-	66.7	-	83.3
	40대	10	-	-	50.0	40.0	10.0	70.0
	50대	23	-	8.7	60.9	26.1	4.3	87.0
	60대 이상	6	-	-	-	100.0	-	50.0
소속 기관	공공기관	7	-	28.6	57.1	14.3	-	107.2
	대학(학계)	28	-	3.6	42.9	46.4	7.1	71.5
	산업계(민간)단체	4	-	-	25.0	75.0	-	62.5
	연구기관	2	-	-	50.0	50.0	-	75.0
	기타	1	-	-	100.0	-	-	100.0

(물가) 2024년 대비 2025년 물가 전망지수는 76.3

- 2024년 대비 2025년 부산지역 물가에 대한 예상은 '개선(매우 개선+개선)' 4.8%(2명), '보합' 47.6%(20명), '악화(악화+매우 악화)' 47.6%(20명)
- 응답별로 살펴보면, 긍정 응답의 경우 '물가 안정 및 상승'이 7.8%(6명)로 가장 높고, 보합 응답의 경우 '물가 인상 요인 없음', '특별한 경기부양 요인 없음' 각 1.3%(1명), 부정 응답의 경우 '환율 상승'이 9.1%(7명)로 가장 큰 비중

〈전문가 특성별 부산지역 물가〉

(단위 : 명, %, p)

구분		N	매우 개선	개선	보합	악화	매우 악화	전망지수
전체		42	-	4.8	47.6	42.9	4.8	76.3
연령	30대	3	-	-	66.7	33.3	-	83.4
	40대	10	-	10.0	50.0	30.0	10.0	80.0
	50대	23	-	-	52.2	43.5	4.3	74.0
	60대 이상	6	-	16.7	16.7	66.7	-	75.1
소속 기관	공공기관	7	-	-	71.4	28.6	-	85.7
	대학(학계)	28	-	3.6	42.9	46.4	7.1	71.5
	산업계(민간)단체	4	-	25.0	50.0	25.0	-	100.0
	연구기관	2	-	-	-	100.0	-	50.0
	기타	1	-	-	100.0	-	-	100.0

▶ (정책과제) ‘기업 유치, 육성, 성장 기반 마련’이 19.5%(16명)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산업 및 경제 활성화 방안 마련’ 13.4%(11명), ‘재정 및 정책 지원’ 12.2%(10명) 등의 순

〈전문가 정책과제〉

(단위 : 명, %)

요인	빈도	구성비	요인	빈도	구성비
전체	82	100.0		-	-
기업 유치, 육성, 성장 기반 마련	16	19.5	고령화 대응 정책	1	1.2
산업 및 경제 활성화 방안 마련	11	13.4	농수산물 유통시장 모니터링 강화	1	1.2
재정 및 정책 지원	10	12.2	동천 악취 개선 및 인프라 개선	1	1.2
노동시장 및 고용 정책	5	6.1	물가 안정	1	1.2
제조업체 경쟁력 향상	5	6.1	경제활력 도모를 위한 모티브 육성	1	1.2
부동산 시장 안정	4	4.9	산업, 인구 통계 정확성 및 적시성 제고	1	1.2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소기업 지원	4	4.9	장기적 기후 관련 모니터링 시스템 확충	1	1.2
수출기업 대상 지원 방안 마련	4	4.9	중·고령(신중년) 근로자 대상 취업 지원 재교육 훈련 강화	1	1.2
고급 인력 양성 지원	3	3.7	지역별 전기가격 자유화 정책	1	1.2
교통 및 물류 인프라 개선	3	3.7	지자체 협력	1	1.2
일자리 창출	3	3.7	기업 육성 지원	1	1.2
글로벌 협력	2	2.4	특정 산업 영향 정책 지양	1	1.2

② 기업체

▶ (경기 개황) 2024년 대비 2025년 경기 개황 전망지수는 70.2

- 2024년 대비 2025년 부산지역 경제 상황에 대한 예상은 '개선(매우 개선+개선)' 7.3%(22개사), '보합' 32.7%(98개사), '악화(악화+매우 악화)' 60.0%(180개사)
- 응답별로 살펴보면, 긍정 응답의 경우 '경기 및 경제 상황 개선'이 4.3%(10개사)로 가장 높고, 보합 응답의 경우 '변동 없음' 6.5%(15개사), 부정 응답의 경우 '경기 및 경제 상황 악화'가 32.8%(76개사)로 주요 요인

〈기업체 특성별 부산지역 경기 개황〉

(단위 : 명, %, p)

구분		N	매우 개선	개선	보합	악화	매우 악화	전망지수
전체		300	-	7.3	32.7	53.0	7.0	70.2
산업별	제조업	153	-	9.8	36.6	45.8	7.8	74.2
	비제조업	147	-	4.8	28.6	60.5	6.1	66.1
종사자 규모별	20명 미만	87	-	8.0	25.3	55.2	11.5	64.9
	20명 이상 50명 미만	89	-	4.5	31.5	59.6	4.5	68.1
	50명 이상 100명 미만	69	-	8.7	33.3	49.3	8.7	71.0
	100명 이상	55	-	9.1	45.5	43.6	1.8	81.0

▶ (개별사 업황) 2024년 대비 2025년 업황 전망지수는 98.3

- 2024년 대비 2025년 개별사 업황에 대한 예상은 '개선(매우 개선+개선)' 24.3%(73개사), '보합' 48.7%(146개사), '악화(악화+매우 악화)' 27.0%(81개사)
- 응답별로 살펴보면, 긍정 응답의 경우 '기업 및 사업 확장', '매출 증가', '업황 개선 기대'가 각 5.0%(8개사)로 가장 높고, 보합 응답의 경우 '변화 없음' 16.4%(26개사), 부정 응답의 경우 '경기 및 경제 상황 악화'가 14.5%(23개사)로 가장 높은 비중 차지

〈기업체 특성별 업황〉

(단위 : 명, %, p)

구분		N	매우 개선	개선	보합	악화	매우 악화	전망지수
전체		300	-	24.3	48.7	26.3	0.7	98.3
산업별	제조업	153	-	28.8	47.7	23.5	-	102.7
	비제조업	147	-	19.7	49.7	29.3	1.4	93.9
종사자 규모별	20명 미만	87	-	24.1	39.1	34.5	2.3	92.5
	20명 이상 50명 미만	89	-	25.8	46.1	28.1	-	98.9
	50명 이상 100명 미만	69	-	23.2	53.6	23.2	-	100.0
	100명 이상	55	-	23.6	61.8	14.5	-	104.5

(개별사 매출) 2024년 대비 2025년 매출 전망지수는 96.1

- 2024년 대비 2025년 개별사 매출에 대한 예상은 '개선(매우 개선+개선)' 22.3%(67개사), '보합' 47.0%(141개사), '악화(악화+매우 악화)' 30.7%(92개사)
- 응답별로 살펴보면, 긍정 응답의 경우 '기업 및 사업 확장', '판매 증가'가 각 4.4%(6개사)로 가장 높고, 보합 응답의 경우 '변화 없음' 21.3%(29개사), 부정 응답의 경우 '인건비 상승'이 15.4%(21개사)로 가장 큰 비중

〈기업체 특성별 매출〉

(단위 : 명, %, p)

구분		N	매우 개선	개선	보합	악화	매우 악화	전망지수
전체		300	0.7	21.7	47.0	30.3	0.3	96.1
산업별	제조업	153	0.7	26.1	45.8	27.5	-	100.1
	비제조업	147	0.7	17.0	48.3	33.3	0.7	91.9
종사자 규모별	20명 미만	87	1.1	16.1	41.4	40.2	1.1	87.9
	20명 이상 50명 미만	89	1.1	24.7	44.9	29.2	-	98.8
	50명 이상 100명 미만	69	-	18.8	53.6	27.5	-	95.6
	100명 이상	55	-	29.1	50.9	20.0	-	104.6

(개별사 인력사정) 2024년 대비 2025년 인력사정 전망지수는 90.0

※ 일반적으로 경기 상승기에 하락하는 역계열로 100 이하는 고용환경 개선 의미

- 2024년 대비 2025년 개별사 인력사정에 대한 예상은 '과잉(매우 과잉+과잉)' 3.0%(9개사), '적정' 75.0%(225개사), '부족(부족+매우 부족)' 22.0%(66개사)
- 응답별로 살펴보면, 긍정 응답의 경우 '경기 호전'이 1.4%(2개사)로 가장 높고, 보합 응답의 경우 '작년 대비 동일' 43.8%(63개사), 부정 응답의 경우 '구인난 심화', '노동 인력 부족'이 8.3%(12개사)로 주요 요인

〈기업체 특성별 인력사정〉

(단위 : 명, %, p)

구분		N	매우 과잉	과잉	적정	부족	매우 부족	평균
전체		300	-	3.0	75.0	21.0	1.0	90.0
산업별	제조업	153	-	2.6	73.2	23.5	0.7	88.9
	비제조업	147	-	3.4	76.9	18.4	1.4	91.2
종사자 규모별	20명 미만	87	-	3.4	78.2	17.2	1.1	91.9
	20명 이상 50명 미만	89	-	1.1	70.8	25.8	2.2	85.4
	50명 이상 100명 미만	69	-	4.3	71.0	24.6	-	89.8
	100명 이상	55	-	3.6	81.8	14.5	-	94.5

(개별사 자금사정) 2024년 대비 2025년 자금사정 전망지수는 88.0

- 2024년 대비 2025년 개별사 자금사정에 대한 예상은 '과잉(매우 과잉+과잉)' 2.3%(7개사), '적정' 73.0%(219개사), '부족(부족+매우 부족)' 24.7%(74개사)
- 응답별로 살펴보면, 긍정 응답의 경우 '매출 증가', '지속적인 관리', '환율 고정'이 각 1.0%(1개사)로 가장 높고, 보합 응답의 경우 '현 상황 유지' 55.9%(57개사), 부정 응답의 경우 '매출 하락'이 5.9%(6개사)로 높은 비중 차지

〈기업체 특성별 자금사정〉

(단위 : 명, %, p)

구분		N	매우 과잉	과잉	적정	부족	매우 부족	전망지수
전체		300	-	2.3	73.0	23.0	1.7	88.0
산업별	제조업	153	-	3.3	69.3	26.1	1.3	87.3
	비제조업	147	-	1.4	76.9	19.7	2.0	88.9
종사자 규모별	20명 미만	87	-	-	63.2	33.3	3.4	79.9
	20명 이상 50명 미만	89	-	4.5	73.0	21.3	1.1	90.4
	50명 이상 100명 미만	69	-	1.4	76.8	21.7	-	89.8
	100명 이상	55	-	3.6	83.6	10.9	1.8	94.5

(개별사 채산성) 2024년 대비 2025년 채산성 전망지수는 88.2

- 2024년 대비 2025년 개별사 채산성에 대한 예상은 '과잉(매우 과잉+과잉)' 2.7%(8개사), '적정' 72.0%(216개사), '부족(부족+매우 부족)' 25.3%(76개사)
- 응답별로 살펴보면, 긍정 응답의 경우 '매출 증가'가 1.6%(2개사)로 가장 높고, 보합 응답의 경우 '변화 없음' 38.4%(48개사), 부정 응답의 경우 '매출 하락'이 11.2%(14개사)로 가장 큰 비중

〈기업체 특성별 채산성〉

(단위 : 명, %, p)

구분		N	매우 과잉	과잉	적정	부족	매우 부족	전망지수
전체		300	0.3	2.3	72.0	24.3	1.0	88.2
산업별	제조업	153	0.7	2.0	69.9	26.8	0.7	87.7
	비제조업	147	-	2.7	74.1	21.8	1.4	89.1
종사자 규모별	20명 미만	87	-	1.1	64.4	32.2	2.3	82.2
	20명 이상 50명 미만	89	1.1	3.4	71.9	23.6	-	91.0
	50명 이상 100명 미만	69	-	1.4	73.9	23.2	1.4	87.6
	100명 이상	55	-	3.6	81.8	14.5	-	94.5